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역 화랑가도 풍년이 들었다. 작고 작가와 원로 작가의 예술 혼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과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톡톡 튀는 감성이 묻어나는 전시 등 그 어느 때보다 가을 화랑가가 풍성하다.



12일 광주시 동구 공동 예향화랑에서 관람객들이 '진양옥'전에 출품된 작품을 감상하며 흥겨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미술관·갤러리도 가을 풍년이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오는 11월29일까지 '2009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석성(碩星) 김형수'전을 갖는다. 김 화백은 한국의 자연적 풍경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는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표현한 한국화 70여 점을 선보인다. 산과 강, 들뜬담을 담체로 표현한 산수화는 힘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며, 농작물이 형상화한 작품에서는 흥겨운 필선이 돋보인다. 그는 한국화의 대가 심산 노수현, 의재 허백련, 남동 허건 선생을 사사한 뒤 한·독 미술가협회 독일전 등에 출품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510-0131.



김형수 작 '소쇄원'

은 불감의 번지는 효과를 통해 은화한 풍경을 담고 있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그는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1963년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작품 활동을 했다. 전남미술협회장, 올림피아추진위 홍보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1984년 타계했다. 문의 062-225-0049.

▲무등갤러리=19일까지 지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미술감상실'전을 갖는다. 중장로축제(13~18일)와 연계된 이번 전시에는 김택현, 오민근, 이조흠, 윤종호, 이재덕, 김대욱, 백지훈, 조선아씨 등이 참여해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사한다.

웃걸이, 인형, 전단지 등을 소재로 현대인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표현한 설치작품이 눈길을 끈다. 문의 062-236-2520.

▲광주신세계갤러리=오는 15~21일 송승남(광주대 주얼리디자인학과 교수)씨의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송씨는 사물을 단순화시켜 본질을 강조한 관화와 다양한 소재로 빛은 주얼리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주얼리 작품을 관화로 형상화하고, 관화 작품 속 사물을 다시 주얼리로 만들어 내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 세계가 흥미롭다. 송씨는 홍익대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전공한 뒤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 캔자스대에서 석사학위를 전공했다. 현재 한국디자인학회 회사를 맡고 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원로 작가 '예술혼'·젊은 작가들의 튀는 감성 산수화로 판화로 광주시립미술관 등서 전시

이번 전시에는 안네그레테 헨케 라이나르츠, 코른 볼프강, 힐데 겐즈, 프랑크 카타리나 등 17명의 작가가 회화와 조각 등 100여점을 출품했다. 안네그레테 헨케 라이나르츠씨는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5·18 포마상주' 사진을 모티브로 한 '한 아이의 슬픔'을 전시한다. 또 대부분 참여작가들이 인권, 평화, 환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22-3574.

▲예향화랑=오는 31일까지 고(故) 진양옥(1932~1984년) 화백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신의 가슴 품은 화가-진양옥'전을 연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최고의 색채화가로 손꼽히는 진 화백은 환상적인 색채와 강렬한 원색을 가미,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영역을 만들어 냈다는 평을 받은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는 남도 특유의 따뜻한 인간미와 생명력을 적절히 빛과 풍부한 색으로 표현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지난 1970년대의 남도인상주의 기법을 담은 구상 작품에서부터 1980년대 색을 강조한 작품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그의 말년의 작품에서는 초록과 빨강, 파랑, 노랑 등 원색으로 풍부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또 불감이 묻은 스펀지로 짠 완성한 그림

## 오방색의 당당한 외출

디자이너 박재원 SFFA서울컬렉션 참가

디자이너 박재원(도투말 대표)씨가 서울에서 패션쇼를 갖고 2010 S/S 컬렉션을 선보인다.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

박씨는 12~13일 열리는 2010 S/S SFFA 서울컬렉션에 박향치 등 유명 디자이너들과 함께 참여, 작품을 선보인다. SFFA 서울컬렉션은 올해로 39회를 맞는 국내 패션계의 대표적 행사로 이번 패션쇼는 내년 봄·여름 유행 의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다.

해마다 패션쇼에 참여하고 있는 박씨는 이번에 '재발견(Rediscovery)'라는 주제로 모두 40여점의 의상을 선보인다. 박씨의 의상은 황·청·백·적·흑 등 전통 오방색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로 간결한 실루엣과 자연스러운

선이 어우러졌다. 특히 박씨가 이번 컬렉션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색이다. 다양한 컬러와 컬러의 만남에서 이뤄지는 오묘한 색감을 그래픽으로 구성, 독특한 문양을 만들었으며 소재는 린넨·마·폴리에스테르 등을 활용했다.

박씨는 "화가가 다양한 물감을 활용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듯, 다양한 컬러의 조화를 통해 전통 오방색의 신비함과 오묘함을 표현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색의 대비, 하모니를 바탕으로 수를 놓듯이 하나하나 수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패션쇼는 신인가수 '메모리'가 박씨의 의상을 입고 노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등 독특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광주 총장로, 서울 삼성동과 신사동에 숨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해마다 신사동에 위치한 숨에서도 두차례씩 패션쇼를 열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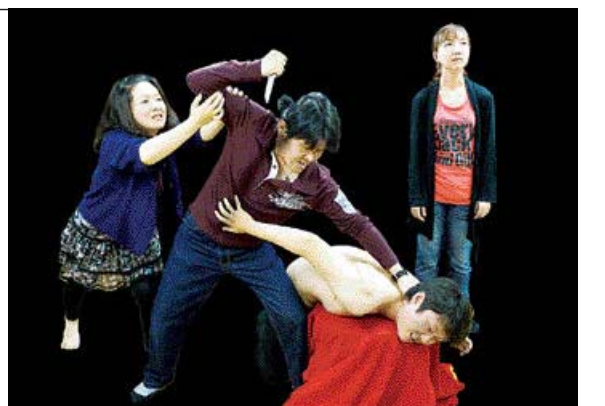


### 여배우 문희의 일과 사랑

극단 '허방' 여섯번째 무대 '식물인간'...서구문화센터 무대에 올린다. 13~14일 오후 8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극단 대표 김영학씨가 대본과 연출을 맡은 '식물인간'은 지난해 모노드라마로 선보였던 '여배우 문희'를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20년간 연극배우로 살아온 여배우 문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녀의 일과 사랑, 고전 비극에 처음 도전하면서 겪는 연출과의 갈등, 연기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한, 열성팬과의 로맨스 등으로 이야기를 풀어낸간다.



극단 허방의 '식물인간'

지난해 공연에서 타이틀롤을 맡았던 문진희씨를 비롯해 이현기·정은희·한유진·이현씨가 출연한다. 티켓가격 성인 1만 5천원, 단체 및 초중고생 1만원. 문의 018-642-9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곡성시니어클럽 생활용기특별전

18일까지 유·스퀘어

곡성시니어클럽(관장 김년두)은 오는 18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실내광장에서 '생활용기 특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65년간 도공의 길을 걸어온 이방균(85) 선생과 송정기씨를 비롯해 곡성시니어클럽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는 지역 노인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예술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단아한 빛깔의 청자와 아마추어 노인들이 만든 생활 자기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학교법인 우암학원이 지난 2002년 노인들의 생산복지기관으로 설립한 곡성시니어클럽은 전국 62곳



이방균 작 '자기'

시니어클럽 가운데 유일하게 소논촌에 소재한 기관으로 지금까지 55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의 061-362-69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계좌제 특별과정**  
2009.11.02 ~ 3개월

**개강당 최대 200명**  
교육비 지원

**11월 2주 Start**

○ 사무자동화 (OA)	○ AUTOCAD
○ 11.2.15.12.29	○ 11.2.15.12.29
○ 웹디자인	○ 전자세무회계
○ 11.15.12.12	○ 11.2.15.12.29

**중앙IT직업전문학교**  
문의: 223.0050

**침·뜸·경락** 수침·침·뜸·경락

10월 16일(금) 14:00-17:00

**CH 중국문화원**  
www.chchina.co.kr

문의: 1544-5359 / 062-238-3516

**김재규 경찰학원의**  
장격 신뢰는 계속된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 합니다

문의: 070-7433-0594